

“온실가스 670만톤 감축”...전남도, 탄소중립에 30조 푼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10년간 6개 부문 97개 사업 추진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선제적 대응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전남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대폭 감축하면서 수송·건물·농축수산·환경관리·탄소 흡수

등의 분야에서 97개 세부사업을 통해 20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670만t(40%)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1일 “2033년까지 30조443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탄소중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생명의 땅 전남’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670만t(40%) 감축 목표를 정했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650만t이었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방법,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부문별로 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 탄소·흡수, 산업 등 6개 부문 97개 세부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화석연료 사용 중심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친환경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관리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470만t에서 284만t으로 39.7% 감축이 목표이다. 건물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등 21개 사업을 추진해 665만t에서 555만t으로

16.5%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탄소 저장 및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 18개 사업을 추진해 381만t에서 278만t으로 26.8%를 줄일 계획이다. 환경관리 부문은 미활용 에너지(폐자원 바이오 가스 등) 발굴 및 이용 확대, 물 수요관리 강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흡수원 확충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는 134만t의 51.0%를 감축한 66만t이다. 흡수 부문은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습지보전,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산림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블루카본 인증 및 바다정원화 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신규 흡수량 50만t을 늘릴 계획이다. 철강 및 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 전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위기에 안전한 전남 조성, 에너지 전환 선도, 녹색성장 촉진, 정의로움 탄소중립 추진, 국내외 탄소중립 교류·협력 강화,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내기준비 분주한 농민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일 오후 광주시 남구 화장동 농민들이 모판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올해 25곳 추가

광주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동구 산수문화마당 사거리 등 19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광주시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25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하며,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와 신호등의 위치를 조정하는 한편 노후화한 신호기는 신규 교체하는 등 교차로 주변 교통시설물과 안전시설물도 정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어린이교통공원, 가상현실체험 입혀 운영 재개

실감 교육 프로그램 등 보완

광주시는 “2일부터 어린이교통공원 별관 신축과 재정비를 마치고 교통 안전 체험교육 운영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 어린이교통공원은 1998년 건립 후 실내 영상교육과 실의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매년 2만여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의 교통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광주시는 최근 시설 노후화와 일부 교육 콘텐츠가 현재 교통문화에는 맞지 않는 지적에 따라 기존 건물(1688㎡)을 개보수하고 별관(510㎡)을 신축해 첨단 실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완했다.

세단장한 공간에서는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급정거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안전벨트 착용 교육’, 스마트폰을 보며 가상의 건설 현장을 지나갈 때 위험성을 인식하는 ‘스마트 보행 체험’, ‘올바른 횡단보도 걷기 체험’ 등을 선보인다. 이륜차·킥보드 안전 체험, 횡단보도·육교 건너기, 미니열차 탑승 등 실의 교육도 이뤄진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단체교육은 어린이교통공원 누리집(www.gctp.kr)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어린이교통공원(062-972-0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 모집

12월 20일까지 선착순 308명 장기체류·배우자 등 초청 혜택

전남도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는 최대 4년 10개월 체류 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지만,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출국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되므로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일 경우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요건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 시험 2급 이상 취득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인원은 308명이다. 시군별 배정 없이 수시로 선착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 외국인 중 도지사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인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사업이 열심히 일하는 전남지역 기업의 숙련기능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 및 통भा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대상 16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 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에서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일반건축물 소유주·관리주체 등이다. 국립생태원 조류충돌 시민참여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시 조류충돌 발견 건수는 5180건으로 나타났으며, 충돌 장소는 건축물과

방음벽이 4932건으로 95%에 달한다. 광주시는 올해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류충돌 피해 민원이 많거나 홍보 효과가 큰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 등 지원 대상 시설물을 5월 말까지 선정,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6일까지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 의견을 기다립니다

- **제보대상**
 - 예산낭비 사례
 - 복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 복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 ※ 제외대상
 -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인신공격, 허위·비방
 - 단순 민원 해결 요청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
 - 익명 제보 및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안

- **제보기간**
 - 2024. 5. 1. ~ 5. 31. ※ 감사시기 : 6. 17. ~ 6. 25.
- **제보방법**
 - 홈페이지 : 광주북구의회⇒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게시판
 - 방문·우편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3층 의회사무국 의사팀 ☎61187
 - 팩 스 : 062-526-4997

☎ 문 의 : 062-410-8506 ※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